

기억하며,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린다.<sup>201)</sup>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여러 가지 기원 미사 가운데 ‘교회 일치를 위한’ 세 가지 미사가 들어 있다. 성무일도의 청원기도에도 같은 지향이 들어 있다.<sup>202)</sup>

대중 신심의 표현들은 “갈라진 형제들”<sup>203)</sup>의 감정을 존중하여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sup>204)</sup> “이러한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모든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다.”<sup>205)</sup> 다른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은 하느님께 공동의 염원을 바치고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도움을 간청하고자, 그리스도인 일치와 은총을 위하여 공동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기회이다. “공동 기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이나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의 주간에 권장된다.”<sup>206)</sup>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에도 여러 가지 대사가 주어진다.<sup>207)</sup>

201.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평화의 인사 전에 드리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참조.

202. 제1주간 주일과 월요일, 제3주간 수요일 저녁기도의 청원기도; 제4주간 수요일 아침기도의 청원기도.

20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8항.

204. 「마리아 공경」, 32-33항 참조.

205. 일치 교령, 8항.

206.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10항, AAS 85(1993), 1084면.

207.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11항, 58면 참조.

## 제5장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

### 몇 가지 원칙들

183.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대중 신심은 중요하고 보편적인 교회 현상이다. 이러한 신심은 다양하게 표현되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믿음과 사랑에서, 또한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맡기신 구원 사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그 동기가 매우 심오하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또한 은총의 질서 안에서 인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사실, “신자들은 성자와 성모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유대를 쉽게 이해한다. 그들은 성자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흠 없는 성덕을 직관으로 알게 되며, 성모님을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후로 공경하면서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그들을 위하여 전구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모님의 보호에 굳게 의지한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은 특별히 성모님을 더욱 가깝게 느낀다. 그들은 성모님께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하셨으며,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유함과 인내를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성모님과 함께 성자의 부활을 기뻐한다. 신자들은 성모 축일을 기쁘게 경축하며, 성모 순례지를 방문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성가를 부르고, 성모님께 봉헌물을

바친다. 그들은 성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불신하며, 성모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참지 못한다.”<sup>208)</sup>

교회는 거룩한 교역자, 수도자와 평신도 등 모든 신자에게 교회가 승인하고 권장하는 신심 행위를 활용함으로써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개인 신심과 공동체 신심을 키우도록 권고한다.<sup>209)</sup> 전례 예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중요성과 전형적인 유효성과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신심을 전부 다 표현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sup>210)</sup>

184. 전례와 대중 성모 신심의 관계는 이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원칙과 규범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sup>211)</sup> 성모 신심 실천과 관련하여, 전례가 “모범”<sup>212)</sup>이 되며, 영감의 원천이 되고, 성모 신심 실천의 변함없는 준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185. 여기서, 성모 신심 실천에 관한 교회 교도권의 몇 가지 선언을 상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신심 행위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들을 개정할 때 또는 예배에서 활용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sup>213)</sup> 교회 목자들이 성모 신심

208. 교황청 경신성사성, 회람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1987.4.3., 67항.

209. 교회 헌장, 6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18항;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은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8항;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4항; 교회법 제76조 2.5항; 제663조 2-4항; 제246조 3항 참조.

2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971.2673-2679항 참조.

211. 본문 47-59, 70-75항 참조.

212. 「마리아 공경」, 1항;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7항; 『성모 미사 경본』, 일러두기, 9-18항 참조.

213. 「마리아 공경」, 24항 참조.

행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다. 성모 신심 행위는 그 민족과 교회 공동체가 지닌 성모 신심의 열매이며 표현이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신자들의 신심이 형성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신자들의 ‘성모 교육’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186. 그러한 신심 행위와 관련한 교도권의 근본 원칙은 그러한 신심 행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적이라 불리는 단일한 예배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 신심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기원과 효력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14)</sup> 따라서 정도와 형태가 다양한 성모 신심 실천은,

● 신약에 계시된 하느님 예배의 특징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특징을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참된 형태의 신심은 성령에게서 비롯되며 성령 안에서 실천되므로 성령론적 측면을 표현하고, 신자들을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마태 18:20 참조)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교회적 특징을 표현하여야 한다.<sup>215)</sup>

● 거룩한 전통 안에서 이해되는 성서에 언제나 의존하여야 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 일치 운동의 요구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에 대한 참된 개념을 반영하고 인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도록 예식 표현의 인간학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종말론적 긴장을 강조하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교에 대한 책임과 증언의 의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sup>216)</sup>

214. 「마리아 공경」, 서론 참조.

215. 같은 곳, 25-39항;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8항 참조.

216.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8항 참조.

## 성모 신심 행위의 시기

### 축일 거행

187. 실제로 모든 성모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은 어떤 면에서 로마 예법의 일반 축일표와 교구와 수도회가 사용하는 특별 축일표의 전례 축일들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처럼) 특정한 신심 실천이 축일의 제정보다 먼저 시작되기도 하고, 반대로 (삼중기도처럼) 축일이 신심 실천보다 훨씬 앞선 경우도 있다. 이는 전례와 신심 행위의 관계, 그리고 신심 행위가 축일 거행에서 정점에 이르는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전례에 관한 한 축일은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으며, 동정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루고 있는 관계의 특정한 측면을 기념한다. 그러나 축일은 전례 규범에 맞게 거행되어야 하며, ‘전례 행위’와 그에 결합된 ‘신심 행위’의 위계적 차이를 명심하여야 한다.<sup>217</sup>

성모 축일은 대중 신심의 표현인 만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간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토요일

188. 토요일은 동정 마리아께 봉헌된 날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진다. 토요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sup>218</sup> 이 기념일은 카롤링거 시대(9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토요

일을 기념일로 지내기로 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sup>219</sup>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대중 신심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은 없다.<sup>220</sup>

그 역사적 기원을 따로 떼어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은 “현대의 영성이 더욱 관심을 갖는” 특정 가치들을 적절히 강조한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던 저 승고한 토요일에 신앙과 희망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밤을 지낸 유일한 제자이셨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모범과 제자됨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거행의 전주이며 시작이고, 동정 마리아께서 교회 생활에 언제나 현존하시며 활동하신다는 징표이다.”<sup>221</sup>

대중 신심 또한 토요일에 지내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 수도 공동체와 신자 단체들의 정관들은 토요일에는 천주의 성모님께 특별한 신심을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때로는 토요일에 특별히 바치는 신심 행위를 할 수도 있다.<sup>222</sup>

### 3일 기도, 7일 기도, 성모 9일 기도

189. 축일은 중요한 날이므로, 흔히 이를 준비하는 3일 기도, 7일 기도, 9일 기도를 한다. 그러나 ‘대중 신심의 시기와 양식’은 언제나 ‘전례 시기와 양식’에 따라야 한다.

219. Alcuin, *Le Sacramentaire Gregorien*, II, ed. J. Deshusses, Editions Universitaires, Fribourg, 1988, 25-27, 45; PL 101, 455-456 참조.

220. Umberto de Romanis, *De vita regulari*, II, Cap. XXIV, *Quare Sabbatum Attribuitur Beatae Virgini*, Romae: Typis A. Befani, 1889, 72-75면 참조.

221.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5항.

222. 그 한 예로는, 나중에 카르투지오회에 입회한 마누엘 가르시아 나바로

217. 본문 232항 참조.

218.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연중 시기’ 동안 토요일 아침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다양한 미사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모 미사 경본』, 일러두기 34-36항과, 토요일에 성모 기념을 허용하고 있는 『성무일도』의 ‘연중 시기’ 토요일 부분도 참조.

3일 기도, 7일 기도, 9일 기도는 신심 행위를 통하여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차지하시는 자리와 그 안에서 하시는 역할을 신자들에게 적절히 제시하는 데에도 유익하다.

신심 행위는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연구 결과에 무관심할 수 없다. 신심 행위들은 그러한 연구 결과를 알리는 교리교육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3일 기도와 7일 기도, 9일 기도는 다양한 성모 축일 거행에 대한 충실한 준비이며, 특히 신자들을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첫 제자이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투신을 새롭게 하도록 격려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자들이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기리며 매달 13일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

### 성모 성월

190. 라틴 교회와 동방 교회에서 널리 지내고 있는 ‘성모 성월’과 관련하여,<sup>223</sup> 여러 가지 본질적인 사항들을 짚고 넘어갈

신부가 만든 *Felicitación Sabatina a María Inmaculada*를 들 수 있다.

223. 비잔틴 전례에서 8월의 전례는 성모 영면 대축일(8월 15일)을 중심으로 한다. 12세기까지 8월을 ‘성모 성월’로 지냈다. 콕트 전례에서 ‘성모 성월’은 대략 1-2월에 해당하는 키악(kiahk)으로서, 성탄과 관련하여 구성된다. 서방에서 성모 성월이 처음 시작된 것은 16세기

필요가 있다.<sup>224</sup>

서방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된 달들을 지키는 관습은 전례가 아직은 확실하게 그리스도교 예배의 표준 형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생겨났다. 이 때문에 전례적 사목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 생겨났으며,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191. 5월을(일부 남반구에서는 11월을) ‘성모 성월’로 지내는 서방 관습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내는 것을 폐지하자는 제안처럼, 지역 교회의 전체적인 사목 활동 분야에서 ‘성모 성월’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연구하게 될 때, 전례의 요구와 신자들의 기대, 신자들의 신앙 성숙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여러 경우에,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성모 성월’의 내용을 전례 주년의 해당 시기와 일치시키는 데에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5월은 대략 50일의 부활 시기와 겹치므로 이 시기에 하는 신심 행위는 성모님의 파스카 신비 참여와(요한 19:25-27 참조),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 사건을(사도 1:14 참조) 강조할 수 있다. 성모님께서 성령의 인도 아래 부활의 새로움에 동참하는 교회와 함께 걷고 계신다. 부활 시기 50일은 또한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 거행과 신비 교육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5월과 관련된 신심 행위들은 영광스러운 천상 모후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거행을 통하여 지금 여기 지상에서 수행하는

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에 현대적 의미의 성모 성월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이 전례보다 훨씬 더 선호하였던 신심 행위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포함한 사목적 노력을 쏟았다.

224.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4-65항 참조.

역할을 쉽게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sup>225</sup>

“신자들의 마음은 먼저, 주년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들을 경축하는 주님의 축일들을”<sup>226</sup> 지향하여야 한다는 전례 현장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도 이러한 주님의 축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자들에게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대 주일은 ‘근원적인 축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대림 4주간은 전례 주년에 조화롭게 통합된 성모 시기의 한 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특별한 시기에 신자들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에 대한 여러 언급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교도권이 권고하는 신심 행위들

192. 여기에 교도권이 승인한 성모 신심 행위들을 전부 열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실천과 보완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 듣기

193. 공의회가 요구하는, 전례 주년 내내 중요한 시기마다 하는 ‘거룩한 말씀 전례’<sup>227</sup>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를 공

225.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들에 관해서는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25-31항 참조.

226. 전례 현장, 108항.

227. 같은 곳, 35항 4) 참조.

경하여 바치는 신심 실천 행위에 손쉽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말씀 전례는 그리스도교 신심의 지향과 완벽하게 일치하며,<sup>228</sup>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과 관련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내포하므로 이미 그 자체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합당한 방식이라는 확신을 반영한다. 성모님께서 말씀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셨으며, 마음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는 이를 선포하셨다.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셨으며 이 말씀에 따라 사셨다.<sup>229</sup>

194. “말씀 전례는 그것의 주제와 구조가 담고 있는 내용 덕분에, 신심의 참된 표현인 동시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교육의 기회가 되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험상, 말씀 전례는 지적이거나 교훈적인 특징을 많이 보여서는 안 되고 성가와 기도, 신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에 직접 가 닿는 단순하고 친숙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사용하여야 한다.”<sup>230</sup>

#### 삼종기도

195. 삼종기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적인 형태의 기도로서, 날마다 세 번, 곧 새벽, 정오, 해질 무렵에 바친다. 삼종기도는 성부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의 힘을 통하여 동정 마리아의 태증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구원 사건을 기념한다.

삼종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신심에 깊이

228. 「마리아 공경」, 30항 참조.

229. 「마리아 공경」, 17항; 『성모 미사 경본』, 일러두기, 10항 참조.

230.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10항.

뿌리를 박고 있으며, 교황들의 모범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 때문에 삼중기도를 바치는 것이 방해받고 있지만,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이 신심 관습을 유지하고 장려하며 적어도 성모송을 세 번 바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삼중기도는 “단순한 구성과 성서적 성격, 하루의 다양한 시간들을 성화하는 준전례 주기의 특성, 파스카 신비에 열려 있는 특징 때문에 수세기를 거치면서도 그 불변의 가치와 때묻지 않은 신선함을 지니고 있다.”<sup>231)</sup>

그러므로 “다양한 기회에, 특히 수도 공동체와 복되신 동정녀의 순례지와 각종 모임이나 회의에서” 종소리와 함께 “주님 탄생 예고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모송과 함께 삼중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다.”<sup>232)</sup>

### 부활 삼중기도

196. 베네딕토 14세의 뜻에 따라(1742.4.2.), 부활 시기 동안에는 삼중기도 대신 부활 삼중기도를 바친다. 10세기 또는 11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도는<sup>233)</sup> 말씀의 강생 신비와(quem meruisti portare) 파스카 사건(resurrexit sicut dixit)을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교회 공동체는 성자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기도를 성모님께 바친다. 이 기도는 구원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름 받으신 주님의 겸손한 여중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건넨 기쁨의 인사(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231. 「마리아 공경」, 41항.

232.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1항.

233. 이 기도는 12세기 베네벤토의 산 루포 수도원의 성가집에서 볼 수 있다. R. J. Hesbert(ed.), *Corpus Antiphonarium Officii*, vol. II, Roma: Herder, 1965, 20-24면; vol. III, Roma: Herder, 1968, 440면 참조.

Ave, gratia plena.)를 말하며 그것에 의존한다.

삼중기도와 마찬가지로, 부활 삼중기도도 때로는 노래로 하고 부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장엄하게 바칠 수 있다.

### 묵주기도

197.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도인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바치는 가장 뛰어난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sup>234)</sup> 따라서 “교황들은 성서에서 영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들과, 성모님과 그 사건들의 밀접한 관계를 묵상하도록 하는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신자들에게 누누이 권고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주교들과 훌륭한 성덕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이 기도의 가치와 효능에 대하여 자주 증언해 왔다.”<sup>235)</sup>

묵주기도는 본질적으로 관상 기도로서, “신자들에게 주님의 일생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장려하는 고요한 리듬과 지속성”<sup>236)</sup>을 필요로 한다. 성직자와 수도자의 양성과 영성 생활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sup>237)</sup>

198. 묵주의 축복<sup>238)</sup>은 묵주에 대한 교회의 존중심을 보여 준다. 이 예식은 묵주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 예식에서, 묵주의 축복 다음에는 “기도와 삶의 완벽한 조화”를 위하여

234. 대사에 관해서는 『대사 총람』, 대사를 읽는 다른 기도, 17항, 62면 참조. 성모송에 관한 설명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6-2677항 참조.

235.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2항.

236. 「마리아 공경」, 47항 참조.

237. 교회법 제246조 3항; 제276조 2항 5호; 제663조 4항;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39항 참조.

238. 『축복 예식서』, 묵주의 축복, 1183-1207항 참조.

우리 주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이 이어진다.<sup>239</sup>

『축복 예식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묵주는 성모 순례지 순례의 기회나 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과 같은 성모 축일 때에, 그리고 10월 말에 공적으로 축복될 수 있다.<sup>240</sup>

**199.** 묵주기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 기도를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신비에 해당하는 성서 구절들을 소개하고, 기도의 일부를 노래로 바치거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또 기도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침으로써”<sup>241</sup> 묵주기도를 더욱 장엄하게 바칠 수 있다.

**200.** 묵주기도를 하루에 한 신비씩 바치는 사람들은 때때로 특별한 날들을 정해 다양한 신비들을 나누어 바친다. 곧 환희의 신비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고통의 신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영광의 신비는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바친다.

이러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르는 곳에서는, 그날의 신비의 내용과 전례의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이 금요일일 때 고통의 신비를 바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날의 전례적 특성이 통상적으로 그날로 정해진 묵주기도의 신비를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날들에는 이 신심 행위와 전례 시기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신비에 대한 묵상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다.”<sup>242</sup> 따라서, 예를 들면, 신

자들은 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신 신비보다 세 동방 박사의 방문을 관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그러한 대체는 성서와 전례적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 성모송을 바치면서 그 사이에 다른 기도를 넣는 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오랜 관습으로서, 묵상을 돕고 마음과 목소리를 일치하게<sup>243</sup> 해 주므로 교회의 목자들이 흔히 장려해 왔다.

이러한 기도문의 삽입은 묵주기도의 반복적이고 묵상적인 특징에 특히 적합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에 이어지는 관계문의 형태를 띠며, 관상하고 있는 신비를 언급한다. 각 단마다 정해진, 성서적 전례적 성격의 짧은 구절을 선택하면 묵주기도의 묵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 “신자들에게 묵주기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권장하면서, 다른 기도들을 불신하게 하거나 교회가 승인한 다양한 형태의 다른 묵주기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sup>244</sup> 평소에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묵주기도는 매우 뛰어난 기도이다. 신자들은 이 기도에 대하여 내적인 평화와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며, 이 기도의 내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sup>245</sup>

### 성모 호칭 기도

**203.** 성모 호칭 기도는 교도권이 권장하는 복되신 동정녀

239. 『축복 예식서』, 묵주의 축복, 1183-1207항 참조.

240. 같은 곳, 1183-1184항 참조.

241.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2항 a 참조.

242. 같은 곳, 62항 b 참조.

243. 전례 현장, 90항 참조.

244.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2항 c 참조.

245. 「마리아 공경」, 55항.

께 바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 성모 호칭 기도는 성모님의 이름을 단일한 리듬으로 연이어 부르는 것으로서, 이로써 지속적인 찬미와 간청의 긴 기도가 성립된다. 성모님을 부르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으며, 찬미(Virgo clemens)와 간청(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Ora pro nobis.)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례서에는 두 가지의 성모 호칭 기도가 있다.<sup>246</sup> 하나는 교황들이 계속해서 권장하는 로레토의 호칭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성모상 대관식을 위한 호칭 기도로서,<sup>247</sup> 경우에 따라 이 호칭 기도들을 서로 적절히 대체할 수 있다.<sup>248</sup>

사목적 관점에서, 호칭 기도의 확산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sup>249</sup> 또한 호칭 기도에 대한 지나친 제한 역시 일부 지역 교회와 수도 공동체의 영적 부요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신성사성은 “지역 교회나 수도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기도문들 가운데 구조가 정확하고 기도문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진 것들을 고려하도록”<sup>250</sup> 권고한다. 물론 이러한 권고는 지역 교회나 수도 공동체

246. 로레토의 호칭 기도는 1874년 로마 예식서에 부록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사에 관해서는 『대사 총람』, 대사를 읽는 다른 기도, 22항, 68면 참조.

247. *Ordo Coronandi Imaginem Beatae Mariae Virginis*, Editio Typic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81, n. 41, 27-29면 참조.

248.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3, c 참조.

249. 호칭 기도는 16세기에 풍부해졌다. 이 기도들은 흔히 비공식적인 신심의 산물로서 조악한 경우가 많았다. 1601년에 클레멘스 8세는 호칭 기도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자 교황청에 *Quoniam Multi*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 훈령에 따르면, 『성무일도』와 『미사 전례서』, 『주교 예식서』와 『사제 예식서』에 수록된 더욱 전통적인 호칭 기도와 성모 호칭 기도만이 신자들이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다(*Magnum Bullarium Romanum*, III, Lugduni, 1656, 1609면 참조).

250.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63항, d 참조.

의 특정 권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0월에는 묵주기도를 성모 호칭 기도로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레오 13세의 규정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성모 호칭 기도를 묵주기도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성모 호칭 기도는 독립적인 예배 행위이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중요한 공경 행위이거나 행렬 요소이며, 말씀 전례나 다른 예배 행위의 일부이다.

###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과 의탁

204. 성모 신심의 역사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또는 의탁’ 행위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다(*oblato, servitus, commendatio, dedicatio*). 이러한 예들은 봉헌문과 봉헌 기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여러 단체의 정관이나 기도서에 반영되어 있다.

교황들은 흔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하는 신심 행위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그들이 공적으로 사용하였던 양식들은 잘 알려져 있다.<sup>251)</sup>

루이 그리농 드 몽포르의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행위의 바탕이 되는 영성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세례 때에 한 약속에 따라 충실히 살 수 있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성모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봉헌하도록 제안하였다.”<sup>252)</sup>

251. 요한 바오로 2세가 대회년 거행을 위하여 로마에 모인 주교들과 함께 2000년 10월 8일 주일에 반포한 *Atto di Affidamento alla Beata Vergine Maria*도 참조.

25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1987, 3, 25., 48항.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한 19, 25-27 참조), 봉헌 행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성모님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과, 복음에 대한 성모님의 증언이 갖는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중요성, 성모님의 간구에 대한 믿음, 성모님의 보호의 힘, 그리고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지니신 여러 가지 직분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은총의 질서 안에서 당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이다.<sup>253</sup>

그러나 ‘봉헌’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성모님께 아이들을 봉헌한다.’는 표현은 본래 아이들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기고 성모님의 어머니다운 축복을 요청한다는 뜻이다.”<sup>254</sup> 일부에서는 ‘의탁’이나 ‘증여’와 같은 다른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전례 신학이 발전하면서 용어를 엄격하게 사용함에 따라 봉헌이라는 용어를 하느님께 드리는 전적이고 영속적인 자기 증여에만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러한 자기 증여는 교회의 개입으로 보장받으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바탕으로 삼는다.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봉헌 행위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장엄하고 영속적인 행위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또 다른 형태일 따름이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은총의 작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성숙하게 내려진 결정에서 비롯되며, 전례적으로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곧 우리가 세례 서약을 지키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완전히 맡기고 성모님의 간구를 간청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봉헌하는 행위여야 한다. 봉헌 행위는 전례에 동화될 수 없는 신

심 행위이므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행위는 다른 형태의 전례 봉헌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갈색 성의와 그 밖의 성의들

205. 성모 신심의 역사에는 다양한 성의에 대한 ‘신심’도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것은 가르멜 산의 성모 성의에 대한 신심이다. 이 성의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공의회가 “여러 세기의 흐름에서 교도권이 권장하여 온”<sup>255</sup> 것으로 평가하였던 성모 신심 실천 가운데 하나이다.

가르멜 산의 성의는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녀 수도회의 수도복이 축소된 형태이다. 이 신심 행위는 매우 널리 퍼져 있지만 흔히 가르멜 수도회의 생활이나 영성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성의는 가르멜 산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모님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모성적 간구에 의존하며 영성 생활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 맺어진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다.

성의는 교회의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 수여된다. 교회의 설명에 따르면 성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세례 때의 결심은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고 마침내 천상 고향으로 들

253. 교회 헌장, 61항; 「구세주의 어머니」, 40-44항 참조.

254.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86항.

255. 교회 헌장, 67항; 바오로 6세, 산토도밍고 성모 대회 교황 특사인 실바 엔리케스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AAS 57(1965), 376-379면 참조.

어가기까지 성삼을 찬미하며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sup>256</sup>

성의 착의식은 “그 기원의 진지함을 잃지 않고” 거행되어야 한다. “이는 즉흥적으로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성의의 착의는 신자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협회의 특성과 목적, 자신의 의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친 다음 이루어져야 한다.”<sup>257</sup>

## 메 달

**206.**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상이 새겨진 메달을 지니고 싶어한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께 바치는 공경의 표시이며 신앙의 증거이고, 그분의 모성적 보호에 대한 믿음의 징표이기도 하다.

교회는 그러한 성모 신심의 징표들을 축복하며 “그 징표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움을 기대하는 신뢰를 증진시켜 준다.”<sup>258</sup>고 믿는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바치는 신심은 “실생활의 증거”<sup>259</sup>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여러 메달들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것은 ‘기적의 메달’이다. 이 메달의 기원은 성모님께서 파리의 사랑의 딸회 수련자인 카트린느 라부레 성녀에게 발현하신 1830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 메달은 성모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

으며, 그 뛰어난 상징성 때문에 ‘성모님의 작은 세계’로 묘사된다. 기적의 메달은 부활의 신비와 예수 성심의 사랑과 성모님의 고통의 마음을 상기시키며, 또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중개 역할과 교회의 신비와, 천상과 지상의 관계, 현세의 삶과 영생의 관계를 뜻한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1941년)과 그와 관련된 여러 운동은 기적의 메달을 더욱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특히 적극적이었다. 1917년 콜베 신부는 이 기적의 메달을 자신이 끈땀땀알 프란치스꼬회의 짧은 수도자였을 때 로마에서 창설한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의 배지로 채택하였다.

다른 모든 메달과 경배물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메달도 부적으로 여겨지거나 어떠한 맹신으로 이끌려서는 안 된다.<sup>260</sup> ‘이 메달을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성모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 대한 겸손하고 끈기 있는 투신과 충실하고 꾸준한 기도,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요구한다.

## 아카티스토스(Akathistos) 성가

**207.** 비잔틴 전통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증받는 성모 신심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서서 부르는 성가라는 뜻의 ‘아카티스토스’ 성가이다. 문학적 신학적으로 뛰어난 이 성가는 초기 교회의 보편적인 성모 신심을 기도의 형태로 요약하고 있다. 이 성가는 성서와 니케아 공의회(325년), 에페소 공의회(431년), 칼케돈 공의회(451년)의 교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4세기와 5세기의 그리스 교부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성가는 사순 제5주일에 동방 전례에서 장엄하게 불리며, 다른 여러 전례 시기에도

256. 『축복 예식서』, 성의의 축복과 착의, 1213항.

257. 「성모 성년을 위한 지침과 제안」, 88항.

258. 『축복 예식서』, 신심 증진을 위한 성물의 축복, 1168항.

259. 위와 같음.

260. 교회 현장, 67항; 「마리아 공경」, 38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1항 참조.

불러지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장려된다.

최근에는 이 성가가 라틴 예법의 일부 공동체에 소개되었다.<sup>261)</sup>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는 특별한 교회적 의미를 가지는 장엄 전례들은 이 성가가 로마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도왔다.<sup>262)</sup>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일치된 초기 교회 신심의 성숙한 열매인 이 고대 성가는<sup>263)</sup> 하느님의 어머니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호소이자 간청이기도 하다. “교회의 다양한 전통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찬미의 보화는 교회가 다시 자신의 ‘두 허파로’, 곧 동방과 서방이 같이 완전히 숨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264)</sup>

261. 아카티스토스(Akathistos)에 덧붙여, 동방 전통에서 비롯된 다른 기도들도 대사를 받았다.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3항, 68-69면 참조.

262. 1981년 6월 7일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아카티스토스를 부른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와 에페소 공의회(431년)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이 성가는 또한 1981년 12월 10-12일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45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불러졌다. 1988년 3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가 산타 마리아 수프라 미네르바에서 아침 기도를 주재하는 동안 슬라브 예식으로 이 성가를 불렀다. 또한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orum*)에서 회년에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심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언급되었다. 2000년 12월 8일에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재하는 비잔틴 가톨릭 교회 대표들과 함께 한 장엄 거행에서 그리스어, 고대 슬라브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아라비아어로 불러졌다.

263. 그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이 성가가 칼케돈 공의회 이후 무렵에 작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800년경에는 베네치아 주교 크리스토퍼가 라틴어 곡을 만들었으며, 이는 서구 중세 시대의 신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733년 사망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게르마누스와 관련이 있다.

264. 「구세주의 어머니」, 34항.

## 제6장 성인과 복자 공경

### 원칙들

208. 성인 특히 순교자 공경은 오래된 교회 현상으로서, 성서와(사도 7, 54-60; 6, 9-11; 7, 9-17) 2세기 초반의 교회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265)</sup>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모두 언제나 성인들을 공경해 왔다. 교회는 이러한 공경의 신학적 토대를 굳건히 지켜 왔으며 명확하게 설명해 왔다. 특히 개신교가 생기고 전통적인 성인 공경의 일부 측면에 대한 의의가 제기된 이래로 더욱 그러하였다. 성인 공경과 교회 교리 사이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설명되어 왔다. 교회는 전례에서든 신심 실천에서든 성인 공경의 표현을 언제나 신중하게 규제하여 왔으며, 이들 뛰어난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 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모범적인 증언을 늘 강조해 왔다.

209. 전례 현장은 전례 주년을 다루면서, 성인과 복자 공경의 교회적 실체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 밖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교회는 연례 주기에 넣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온갖 은총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렀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성인들의 탄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265. 카이사리아의 성 에우세비우스,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 V, XV, 42-47, 『그리스도교 원전』(SC) 31, 파리, 1952, 189-190면 참조.